

개발에 묻힌 바다 잠녀들은 떠나고...

[제주잠녀] 105. <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76)제주시 산지어촌계

등록 : 2008년 02월 11일 (월) 16:55:27
최종수정 : 2008년 02월 11일 (월) 16:55:27

고미 기자 ✉ popmee@jemin.com



▲매립된 탐동 바다.

"쉬멍 할 게 뭐 이서, 지금도 놀멍 일 하는디"

대목을 앞두고 분주한 어시장과 달리 산지어촌계 사무실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다.

예전 설이 코앞에 다가오면 삭풍쯤은 무시하고 바다에 몸을 던졌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헛것이라도 해볼까 나왔다"는 목소리에 힘이 없다.

"물건이 좀 나느냐"는 물음에 이내 타박이 돌아온다. "여기 이곳(산지) 출신은 손으로 꼽을 정도"라며 "서방 따라 왔지 물건을 따라 오라고 했으면 안 왔다"고 넋두리 아닌 넋두리다.



삼도동과 건입동, 동부두까지 3개 잠녀회가 속해있는 산지어촌계 바다. 탐동 매립 등 개발로 잠녀들이 설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먹돌 바다'명성은 사라지고

예전 산지 '먹돌 바다'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옥했다. 물론 탐동 매립 전 얘기다.

삼도리(동)와 건입동, 동부두까지 3개 잠녀회가 속해있는 산지어촌계의 잠녀는 70여명에 이른다. 하지만 실제 헛물질을 하는 잠녀는 30명선. 말그대로 '다른 할 일이 없어' 바다에 간다고 했다.

예전에는 소라 수확량만 10만kg가 넘었다.

금릉 출신이라는 고시열 할머니(76)는 "(소라) 수출을 할 때는 과수원(감귤)보다 훨씬 벌이가 좋았다"며 "그때 벌어서 아이들 공부도 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생활비도 안 된다"고 말했다.

결혼 이후 부산 등에서 살다 제주에 내려온 뒤 다른 할 일이 없어 시작한 일이었지만 50대까지는 적잖이 돈을 만졌다. 지금은 말 그대로 "할 일도 없고 습관이 돼서" 물질을 하고 있다.

50대 20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60-70대인 이곳 잠녀들은 공동어장 작업만 한다. 쉬엄쉬엄 먼바다 작업을 하는 탓에 '상군'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벌이가 1년 300만~400만원밖에 안 된다.

그마저도 이제는 여의치 않을 예정이다. '어장이 안좋다'는 이유로 올해 어업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탐동 매립이며 어항 건설이며 개발바람에 밀려 잠녀들이 설 곳은 점점 좁아졌다.

3개 잠녀회 중 탈의실이 있는 곳은 삼도리와 동부두 잠녀회 뿐 건입동 잠녀회는 산지어촌계 사무실을 탈의실 대신 사용하고 있다.

가건물 형태로 남아있던 동부두 잠녀회 탈의실도 조만간 없어질 처지다.

"도로 정비를 한다며 탈의실을 없애버리고 탐동 매립 때 천초 바닷도 없어졌다"며 "도 전역에 백화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곳이 없다지만 이곳처럼 심한 곳은 없다"는 말에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바다 떠나 살 수 있나"

물건이 적다고,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바다가 없어진다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다.

탁바르에 전복 종패 4만 마리를 뿌리는 등 나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잠녀들의 상실감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듯 했다.

'적극 지원하겠다'는 자치단체의 목소리는 잠녀들에게 전달되기에는 너무 약하다. 70명 가까운 잠녀가 있는 산지 어촌계에 지난해 보급된 잠수복은 고작 13벌. 상군 잠녀 1명이 1년에 한번 잠수복을 바꾸는 것을 감안하면 턱없이 모자란 숫자다. 그러다보니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지 않을지 고민 같지 않은 고민까지 해야한다.



그래도 바다에 나가야겠다며 몸을 일으킨 한 잠녀가 작은 상자 하나를 꺼낸다. 작은 약병 몇 개가 빼곡히 고개를 들고 있다.

두통약, 감기몸살·코감기약, 위장약, 신경안정제에 이것들을 한꺼번에 먹기 위한 자양강장제 한병, 잠수복 수선에 쓰이는 고무풀...

▲잠녀 약상자

유독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산지 바다에서 신경안정제를 먹는 것은 '윗대'에서 배웠다고 했다. "물 속에서 이불 뭉치며 장갑 같은 것을 보면 시체를 보는 것 같아 그렇게 무서울 수 없다"며 "이것들 없이는 물질을 못 한다"고 말했다.

유독 생활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산지 바다에서 신경안정제를 먹는 것은 '윗대'에서 배웠다고 했다. "물 속에서 이불

고령화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잠녀를 보호하겠다는 자치단체의 정책에 먼저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든다.

"앞에서는 지원해주겠다고 하면서도 직접 찾아가 이것저것 건의하면 좋은 소리 하는 것을 못 봤다"며 "어떻게 어장 관리를 해보려고 해도 물건이 많이 나지 않는다고 어업허가도 내주지 않고 외항건설 등 개발이 시작되면서 잠녀들은 뒷전에 밀렸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제는 바다가 없어 바다에 못 간다"는 잠녀들에게 더 이상 무슨 위로가 필요할까. 독한 진통성분의 약을 견디지 못해 위장약을 먹고, 깊은 바다 작업을 위해 신경안정제까지 찾는 잠녀들은 하나 둘 바다를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바다 별이가 없다보니 살다 처음 감귤 작업하러 가봤다"는 한 잠녀의 말이 큰 짐처럼 어깨를 짓누른다.

'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다음 이야기는 제주시 화북어촌계이며, 관련 내용은 해녀박물관 홈페이지 (www.haenyeo.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